



ISSUE BRIEFING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연구책임

황영모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2022. 12. 28 vol.274

연구진 정호중 전문연구원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주목하는 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6차산업·향토산업·신활력사업' 등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과 지역조직을 활용해 농촌활력을 도모하고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유무형의 지역자원과 자생적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이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사회가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국의 일반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이 사업은 '추진주체 육성, 창의적 사업추진, 사업조직 운영'등에 개소당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00개 시·군이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2018년 완주군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12개 시·군이 농촌신활력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한편, 그동안 여러 형태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일부 특화 자원 브랜드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농촌활력을 이어가는데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한계와 지적이 많음
- 해당 정책사업이 종료되면 활력의 실행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의미와 성과 확산 방안에 주목하게 됨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농촌활력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장(공간+프로그램 등)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기 위해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임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현장에 많은 청년 혁신가와 활동가들이 양성되고 있고, 이른바 실행조직인 '액션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혁신활동을 기획하고 사업화로 나아가고 있음
-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주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 내외의 청년 등 주민들이 사업과 활동을 발굴하고, 정책사업을 활용해 실행역량을 키워가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 그러나 정책사업이 끝나고 나면 혁신과 활력의 역량을 키웠던 실행주체(사업조직)가 해산되거나 활동이 유야무야되어 소중한 정책사업 성과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 일정 기간을 지원하고 종료하는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지역의 몫이며, 농촌정책이 허투루 되지 않게 지역차원의 지원과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기간(4년)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서 농촌활력 활동 역량을 지속시키는 방안을 지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하겠음
- 이 글은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전라북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농촌신활력’이라는 활동·혁신 역량을 키워가는 정책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내용과 특징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2018)
- 특히,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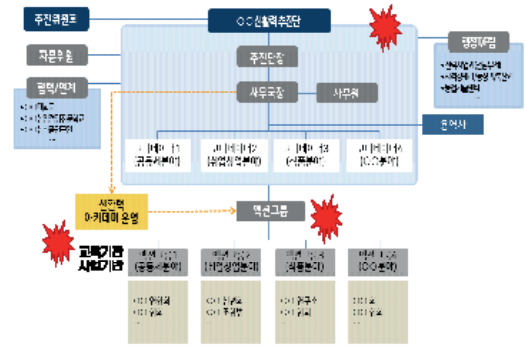
추진과제	추진주체 육성 역량강화	창의적 사업발굴·추진	통합적인 농촌발전 연계
세부내용	·현장 활동가 양성 ·활동조직 (액션그룹) 육성	·농업·농촌자원 활용 전략 모델 개발 ·특화산업 고도화, 지역순환 경제,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 정책사업 추진 ·계획협약 도입, 농촌협약 연계
실행기반	사업전담 추진단(사업조직, 플랫폼) 구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설명 자료’.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다른 추진방식(Actor-System-Planning contract-Project, ASPP)을 채택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임
 - ①사업주체와 활동가 육성(actor), ②사업추진단 구성과 주체간 파트너십(system), ③계획협약(planning-contract), ④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창의적 사업 추진(project)
-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 특화발전 등 농촌활력의 증진에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되, ‘6차산업·향토산업·신활력사업’ 등 그 동안 정책지원

〈표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내용과 실행기반

〈그림 1〉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신활력플러스 설명자료'.

으로 축적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가·자생조직(로컬 그룹 등)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과 (소규모)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현장 활동가와 활동조직을 육성하고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1단계)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장 활동가 발굴과 활동조직(액션그룹)¹⁾ 구성·네트워킹 → (2단계)활동조직²⁾ 등의 제안을 받아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모사업으로 조직역량 배양
- 선정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조직(주체)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을 구성·설립하여 사업발굴·주체육성·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대상으로 개소당 4년간 70억원을 지역자원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음
- 현재(2022년) 전국에서 총 100개의 시·군이 선정되어 농촌의 자립적 성장 사업을 하고 있음
 - 전북(12개소), 경기(6), 강원(8), 충북(11), 충남(11), 전남(12), 경북(19), 경남(14), 제주(2)³⁾

1) 액션그룹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조직으로 기존조직 참여와 신규조직 구성 등으로 추진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EU 'LEADER 프로그램' 중 지역활동그룹(LAG) 형태)
 2)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농촌공동체회사) 참여유도, 청년층 아이디어 반영 조직 인센티브 안내
 3) 연도별 선정 : 2018년(10개소), 2019년(20개소), 2020년(30개소), 2021년(20개소), 2022년(20개소)
 4) 이 내용은 최재문(2022), '성공적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한 추진방안',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 워크숍 발표자료에서 정리하였음

3. 전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실태⁴⁾

- 전라북도는 일반농산어촌 13개 지역 중 12개 시·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주도 창의적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여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선정 지역 중 9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 (사업시행) 2018년(완주군), 2019년(김제시·익산시·임실군·장수군), 2020년(남원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 (계획수립) 2021년(진안군), 2022년(정읍시·무주군)
- 12개 지역의 사업주제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향토자원 고도화 지원’ 등으로 유형화되는데, 시·군별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한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주체역량의 실체인 ‘액션그룹’은
9개 시·군에서 총 191개 조직의 2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구분	액션그룹 조직수 (개소)				액션그룹 참여인원 (명)			
	합계	기존조직	신규조직	시군평균	합계	기존조직	신규조직	시군평균
합계	191	77	114	21.2	2,002	782	1,220	222.4
사회적경제 조직	85	19	66	9.4	588	231	357	65.3
일반 조직	106	58	48	11.8	1,414	551	863	157.1

* 자료 :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 자체 조사결과(2022.7.)

- 지역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조직(추진단)은 2019년부터 정보교류·자율모임 등으로 추진역량을
키워나갔고, 2022년 9개 추진단이 참여한 ‘전북 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를
설립해 성과공유·협업체계를 갖춰 공동 활동을 하고 있음

[완주군] “치유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

- 완주군은 ‘W푸드테라피⁵⁾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푸드테라피
+밀키트+미니팜’을 주제로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W푸드아카데미 운영 : 공동과정
(기본교육)→숙련자 과정(조직
화교육)→전문가 과정(치유농업,
미니팜 공유, 치유식품 개발)
단계로 운영하여 액션그룹
발굴과 역량 강화 추진



- W푸드 치유식품 개발 : 맞춤형 기능성 밀키트(로컬푸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완주 로컬푸드 상품의 확장성·경쟁력 강화
- W푸드 가공센터+테라피센터 조성 : 밀키트 제조 기반 마련, 로컬푸드 기반
거점공간과 치유복합공간을 조성
- 모두의 농장 조성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마련을 목적,
치유·교육·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 공동공간으로 기능
- 완주미니팜 공유사업 추진 : 로컬푸드의 새로운 전달방식으로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유경제 모델, 가정용 공유 치유농장 구축 시스템

〈표 2〉 전라북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액션그룹
현황

5) 'W푸드'는 농식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wealthy), 지역식품 개발
(wild), 지역소비 창출(way of life),
지역복지 실현(wealfare)을 목적으
로 하는 개념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품질개선 등

-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운영 권역마을에 유통거점 조성, 품목별 개발조사 및 지역대표 상품화, 전자상거래 실행계획 수립 및 대표 브랜드 개발·관리
- 농촌활력 아카데미 운영 : 마을리더 및 액션그룹별 활동주체 역량 강화, 전자상거래 및 시골여행 활성화 주도 주제 육성, 종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온라인 유통+시골여행+농촌활력아카데미 등)

[임실군] “재시작 시스템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임실군은 ‘재시작 시스템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시작+공유경제+생활공동체’를 주제로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동체 맞춤형(SW)·활성화(HW) 지원 :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액션그룹 활동 지원을 통해 사업화·활성화까지 지원되는 단계별 지원 시스템 운영



- 공유플랫폼 구축 운영 : 지역자원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유자원(공간·물건·정보 등)의 제공자·수요자 간 쌍방향 플랫폼 구축과 운영
- 농촌활력플러스센터 조성 운영 : 지역공동체 조직의 집적화, 교육·회의·교류·아카이브·창업공간·스튜디오·상품판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지원의 공간
- 임실N치즈유통센터+카카형 판매장 조성 : 임실N치즈 브랜드 및 유통망 활용, 판매장·농가레스토랑·가공상품 개발 등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
- 찾아가는 청년상단+공정여행사 : 지역자원·청년조직 활용 상설장터 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추진, 지역 체험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여행사 설립·운영

[장수군] “레드푸드(Red Food)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활력화”

- 장수군은 ‘레드푸드(Red Food)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목적으로, ‘레드푸드+대량 소비처+사회적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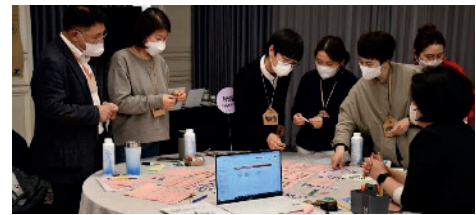
추진하고 있음

- 장수 리더스 아카데미 : 청년 리더, 분야별 코디네이터 양성, 조직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비처 맞춤형 제품개발 : 장수 농식품 원재료의 소비처가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 지원
-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 조성 : 공유형 생산라인을 갖춰 건조·음료원료·절임 등 반제품·완제품 형태로 제조하는 시설, 소비처가 희망하는 포장 단위로 공급·판매
- 소비지 시장개척+소비처 맞춤형 유통 활성화 : 장수 농축산물 플래그십 스토어 개설, 농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상표출원 지원
- 사회적 공유경제 활성화 : 사회적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리더 조직화를 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공유공간 구축 지원



[남원시]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모델 구축으로 주민이 행복한 농촌 실현”

- 남원시는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모델 구축으로 주민이 행복한 농촌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주민자치+탄소중립+현장 활동가’를 주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리산마을 대학 운영 : 액션 그룹과 전문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주제별 맞춤형 역량강화 집중(신활력아카데미·청소년지역활착교육·신활력현장활동가양성·지역혁신리더교육·탄소중립 에너지전환교육 등), 지역주체 육성을 위한 현장전문 교육
- 지역활력공작소 조성 운영 : 공동체 활동거점, 공동체 간 교류 및 사업활동 지원, 공동체 조직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 주민주도 생활·경제공동체 사업 : 주민주도 자치역량 강화(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생활서비스 주도적 제공), 경제공동체 기반을 위한 창업·자립화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지원(창업인큐베이팅)

- 지역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사업 : 탄소중립·주민주도 지역에너지 자립화 사업 지원, 생활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탄소중립 시범사업 운영

[순창군] “융복합 농촌 공동체 플랫폼 구축”

- 순창군은 ‘융복합 농촌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미생물융합+융복합’을 주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액션그룹 육성·통합관리 : 사회적 농업사관학교(전문교육), 순창 미생물스쿨(미생물융합산업 전문화 교육), 융복합비즈니스 자립학교(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역량 강화)
- 융복합거뮤니티센터 조성 : 문화·교육 등 복합공간 조성(공유오피스·MR 제작실험실·지식배움터·멘토링룸·북카페·다목적홀 등)
- 통합브랜드 구축 : 통합적·체계적 생산·품질·유통관리 통합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 액션그룹 사업관리지원 시스템 개발 : 사업·활동·소통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상품전시·바이어매칭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상스튜디오·MR제작실험실 운영 : 홍보·마케팅을 위한 촬영 미디어룸, 액션그룹의 상품·체험 프로그램 비대면 공간 운영



[부안군] “지속가능한 안심 농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부안군은 ‘지속가능한 안심 농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안심농산업+공유경제+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액션그룹 텃밭학교 및 현장 전문가 밀거름 학교 : 핵심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 액션그룹 맞춤형 비즈니스화



지원 : 아이템발굴 지원(창의사업)→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중형사업)→지속가능 성장지원(공유사업)의 단계별 지원

- 신활력공작소 조성 운영 : 교육·창업·문화복지·기술지원·멘토링 등 사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다목적 활용 공간 조성
- 안심 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조성 : 안심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유통망 확보와 연계지원, 스마트팜(체험농장), 가공센터, 에코농산물 물류유통 지원센터
- 지역 대표 농산물 상품화 지원 : 공동 전처리 작업장, 밀키트 개발·산업화, 기업지원

[고창군]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농생명 식품산업의 한반도 첫수도 고창 구축”

- 고창군은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농생명 식품산업의 한반도 첫수도 고창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농산물+명품농산물+공유플랫폼’을 주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공동체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화 지원, 친환경 패키지 연구와 농가 보급



- 높을고창 공유가공센터 구축 : 지역생산 농산물 활용 1.5차 공유가공(전처리·반가공) 시설 구축, 가공상품의 식품기업·외식업지부 유통 시스템 지원
- 명품스타트업·가공명품기업 지원 : 명품화 기술지원 교육·컨설팅, 공유가공센터 활용 상품개발·창업지원·제품개발·리뉴얼 지원, 발효식품산업 실습 지원
- 공유물류 유통·마케팅벤더 육성과 향토음식문화 발굴 : 유통·마케팅 전문단체 육성, 향토음식전문가 양성
- 유네스코 식품산업 명품브랜드화 지원 : 소셜미디어 채널운영·인재양성, 온라인 홍보

[실행준비 지역] “진안군, 정읍시, 무주군”

- 진안군은 ‘헬스푸드 중심도시 진안’을 목적으로, ‘헬스푸드산업 육성·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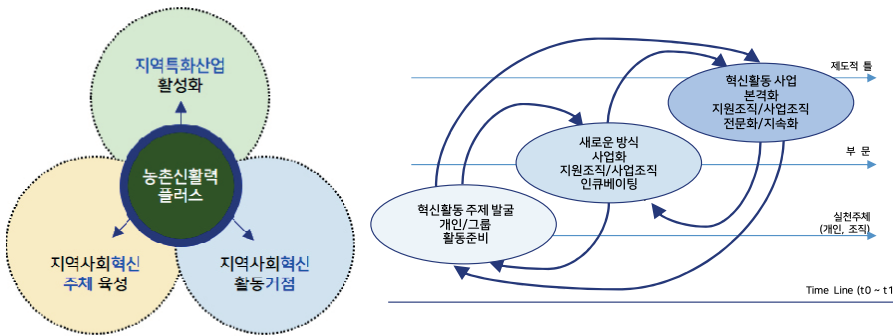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 정읍시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액션그룹 및 향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향기관련 인력육성+향기산업 고도화+지역상생’을 주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 무주군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산림치유·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혁신역량강화+산림치유·관광 인프라+일자리 기반’을 주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4. 농촌신활력플러스 성과확산의 실행과제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추진과제·사업방식을 토대로 성과확산 방안을 ①혁신활동 주제 육성, ②창의적 사업발굴과 실행력, ③사업조직 지속 운영’으로 구분·검토하여 제안함



〈그림 2〉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요소 (좌)와 활성화 경로 (우)

1) 농촌사회 혁신활동 주제 육성의 지속화

- ‘혁신활동 주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의 구축과 지역순환 발전 구조의 핵심역량임
- 지역의 청년활동가 등을 활동가로 양성하여 조직화하고, 민간조직(특히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액션그룹(활동조직)으로 참여하여 사업과 활동을 담당하는 지원 프로세스를 갖고 있음
 - 활동가 양성(actor) → 조직 활성화(academy) → 역량배양(ability development) → 사업의 지속성 확보(collaboration & network)
- 모든 사업지역에서 ‘활동가를 발굴하는 아카데미 운영 → 기존+신규 조직을 액션그룹으로 참여 → 활동조직 대상의 사업·활동 지원’ 등의 경로로 혁신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음
- 액션그룹(활동조직)의 양적·질적 수준에 따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향하는 정책적 성과를 가름할 수 있고, ‘농촌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주인’⁶⁾에 주목해야 함

- (대표사례) 남원시는 ‘사회적경제+주민자치+탄소중립’ 영역(창의적 사업)에서 39개 액션그룹을 육성(협동조합 21개, 신규법인 18개)하고, 조직화를 진행하여 혁신역량을 육성하고 있음
 - 액션그룹(네트워크)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획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거점 공간 활용 주도력을 갖추며, 읍면생활권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혁신활동 주체(조직)로 기능하도록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액션그룹(활동조직)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가능하게 활착(活着)하는 지원을 견지하여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나가야 함

〈그림 3〉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활동 주체 육성 추진단계

추진단계	기초단계(실천기반)	성장단계(기술기반)	혁신단계(연계혁신)
추진방향	초보적 인적·물적 기반의 결합과 혁신	사업화(사업+활동)의 추진과 고도화·전문화의 지원	혁신연계조직(지원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 활용
프로그램	소그룹 조직화와 공간운영 주도력 갖추는 활동 지원	창업, 기술·장비결합, 사업·활동에 필요한 학습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고도화로 혁신연계 활동 결합 촉진

* 자료 : 황영모(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혁신적 조직성장 방향’,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 워크숍 발표자료.

- 한편, 정책사업 기간은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 종료(예정)지역을 고려할 때 양성된 ‘액션그룹’⁷⁾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도+시군) 마련을 제안함⁸⁾

2) 창의적 사업발굴과 추진을 위한 실행력 유지

- ‘창의적 사업발굴과 추진’은 지역이 보유·축적해온 자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추되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성을 갖춰 농촌사회+지역경제의 신활력을 목적으로 함
- 기존 농촌개발 재정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인력·조직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기반·프로그램 등을 갖춰가는 사업·활동이어야 함
- 창의적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자산(물적·인적·조직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형태로 혁신적인 사업·활동을 탐색·준비하고 실효적 실행단계로 나아가는 것인 관건임
- (대표사례) 지역 창의적 사업 발굴과 추진의 주요배경과 주제
 - 완주군 : (기존)로컬푸드+사회적경제 성과 → (혁신)푸드테라피+밀키트+거점·시설 조성
 - 김제시 : (기존)유통거점+청년조직화 성과 → (혁신)김제푸드 거점조직+청년

6) 액션그룹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소규모 공동체~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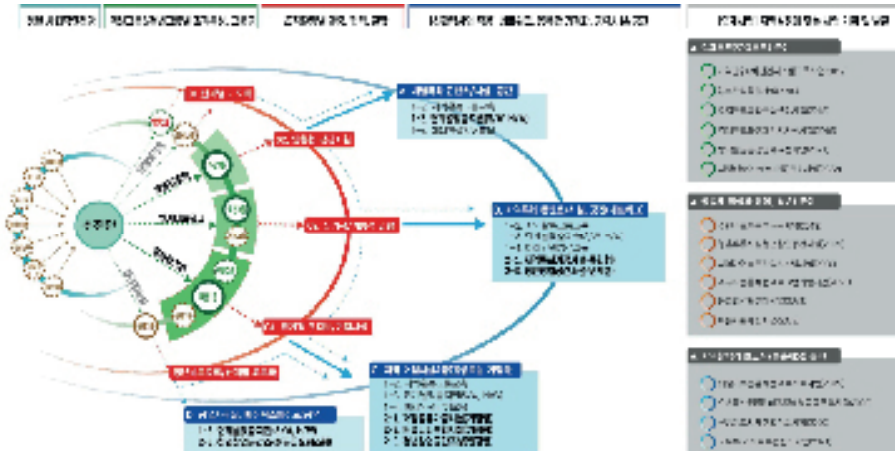
7) ‘액션그룹’은 농촌 혁신활동 주체로 기능, 기존 사업·활동조직이 포괄하지 못하는 인적구성, 사업테마, 네트워킹 등을 통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향하는 정책적 성과를 일정 기간 내 발현할 주체임

8) ‘(가칭)전라북도 농촌활력 액션그룹 지원 사업’을 제안함. 사업종료 시군 대상으로 지역별 액션그룹의 혁신활동·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계와 연계한 지원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조직+거점공간

- 장수군 : (기존)레드푸드 향토산업의 성과 → (혁신)가공·상품화 역량+대도시 소비처 개척
 - 임실군 : (기존)치즈+농촌관광+귀촌 성과 → (혁신)치즈유통·판매거점+청년 상단+공정여행
 - 남원시 : (기존)지리산 공동체 역량의 성과 → (혁신)마을대학+사회적경제·주민 자치 사업화
- ‘혁신역량+사업역량+사업조직’의 형태와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고, 지역 사회의 협력수준도 결합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함
 - 전라북도는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 갖춰온 자원·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사업 내용을 정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방식으로 실행조직을 갖춰 일정한 사업·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자료 : 김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

- 한편,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심사 자료에서 제시하고 기본계획에 명시한 ‘연계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군의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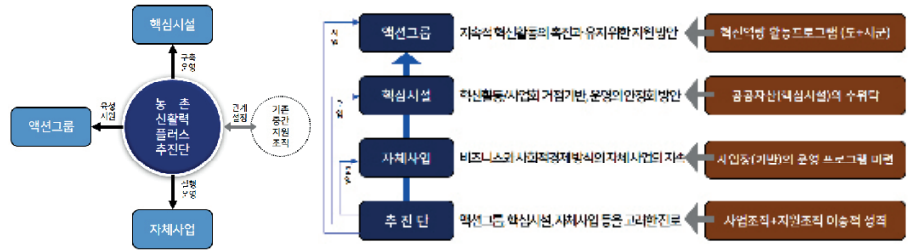
3) 사업·추진 조직의 지속 운영방안 마련

- ‘추진단’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정책사업 수행 전담조직’으로 정책 지원기간(4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지속하는 방안임
-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정책의 목적 수행을 위해 ‘①액션그룹 육성, ②핵심시설 운영, ③자체사업 수행’을 맡는 ‘사업조직이자 지원조직’으로서의 이중적 성격⁹⁾을 갖고 있음
- 정책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주체(사업단)가 해체되어 활력의 싹을 키우고

〈그림 4〉 창의적 사업발굴·추진 과정·내용 사례 (김제시)

9) 전북의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역별 목적·주제와 사업·활동의 수행 내용을 고려할 때, ①향토자원 상품화를 위한 ‘사업조직’이거나 ②농촌 혁신역량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의 성격으로 대별할 수 있음. 사업조직의 성격은 ‘장수군·고창군·순창군·원주군’ 사업단, 지원조직의 성격은 ‘남원시·김제시·임실군·익산시’ 사업단이 강하지만, 지역별로 이중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

〈그림 5〉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위치(좌)와 진로(우)



- 정책사업 시행기간(4년) 내에 추진단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지역별로 정립하고, 법인화 등을 통해 독립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립화 방안¹⁰⁾을 강구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고려할 점은 지역별로 추진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역할을 토대로 '①사업조직화 또는 ②지원조직화'의 방향에서 적절한 방식의 법인화를 선택하여 준비해 나가야 하겠음
- 지원조직 기능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역에 이미 설립·설치되어 활동하는 기존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귀농귀촌+사회적경제 등)과의 관계(통합화+독립화)¹¹⁾도 고려해야 함
- 특히, 추진단이 자립화하여 사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이 핵심으로, 관련 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정책사업 수탁 수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를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 조례 마련 지역은 총 9개 시·군임(기존 조례 해석 4, 기존 조례 개정 2, 신규 조례 제정 1, 포괄 조례 제정 2)
 - 정책사업 기간 내에는 시·군별 지원(예산매칭+인력파견 등)이 가능하지만, 사업 종료 이후 사업·활동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지원조직 지정·수위탁, 시설물 운영관리'¹²⁾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함 (완주군의 포괄적 지원조례가 대표 사례임)

10) 사업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으로는 공공사업의 수탁 수행, 공공시설의 수탁 운영 등이 있음

11) 농촌협약(농촌지역개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을 유도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12) '완주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례
 ·지원대상 : 기존 완주군이 정책사업을 통해 육성해온 자체 시책 사업을 열거하고 그를 통해 육성해온 공동체 및 사업조직을 명시
 ·시설운영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의 설치·운영, 위탁 운영 등 운영방법의 근거를 명시

〈참고문헌〉

김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설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신활력플러스 설명자료'.
 최재문(2022), '성공적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한 추진방안',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 워크숍 발표자료
 황영모(20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혁신적 조직성장 방향',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 워크숍 발표자료.

Summary

Measures to spread the results of the ‘Rural New Vitality Plus Project’

Young-mo Hwang, Research Fellow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been implementing the ‘Rural Revitalization Plus Project’ since 2018 to promote rural vitality by utilizing local assets and local organizations accumulated through policy support.
- In Jeollabuk-do a total of 12 cities are promoting projects and activities for rural vitality.
- Jeollabuk-do’s project can be categorized into ‘local food system establishment, local resource advancement support, sharing economy platform establishment’.
- At the time when the support period for the Rural Revitalization Plus project is sequentially ended, a plan to continue the rural vitality activity capacity should be prepared at the regional level.
- Based on the purpose and business method of the Rural New Vitality Plus Project, measures to spread the results are reviewed and proposed as ‘Fostering innovative actors, Creative project discovery and execution ability, and Continuous oper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 Firs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continuously nurture ‘innovators in rural society’.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ctivity support program at the regional level to maintain the ‘action group’ that has been cultivated eve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 Seco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xecutive power for ‘creative project discovery and promotion’.
 -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administration(cities) so that the ‘linked project’ can be implemented while expanding step by step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local active assets.
-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tinuous operation plan that makes the ‘business and promotion organization’ self-sufficient.
 - In order to continue business and activities, the basis for ‘consign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policy projects’ should be prepared in related ordinances.

Key Words Rural New Vitality Plus Project, Fostering innovative actors, Creative project discovery and execution ability, Continuous oper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ISSUE
BRIEFING 2022. 12. 28 vol.274

Measures to spread the results of the 'Rural New Vitality Plus Project'

Young-mo Hwang, Research Fellow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